

 국토교통부		<b>보도참고자료</b>	
		배포일시	2018. 8.30(목) / 총 2매(본문2)
담당부서	신공항기획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장 주종완, 사무관 김진성, 주무관 정광성</li> <li>• ☎ (044) 201-4137, 4142, 4143</li> </ul>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## '국토부 신공항 용역 잘못 시인' 보도 관련

- 김해신공항의 사전 타당성 조사용역 때 산 절취와 소음문제, 입지 선정 등의 과정이 실정법 위반을 시인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, 이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입장을 알려 드립니다.
  - 소음피해 부분에 대한 현장조사 미 실시 주장에 대하여
    - 신규 활주로는 장래에 건설할 예정이므로 소음측정은 당연히 소음 추정 방식으로 실시하여야 하며, 美FAA의 소음예측 프로그램 (INM)을 통해 소음영향 가구수를 분석 제시하였고, 당시 현장 방문을 시행하여 현장 여건도 충실히 파악하여 실시한 것입니다.
  - 군 당국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
    - 김해신공항은 국토교통부가 건설하는 민간 공항으로 군사기지법이 아닌 공항시설법 적용 대상으로서
    -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공군과 실무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공항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의 중입니다.
  - 진입표면 장애물 절취에 대한 조사를 미 실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
    - ADPi는 사전타당성조사에서 항공법(현.공항시설법)에 의한 장애물 제한표면(OLS), 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 등 국제기준에 의한 장애물

평가표면(OAS), 충돌위험 모델링(CRM) 등을 종합적으로 시행하여 항공기 운항안전성을 검토하였습니다.

- \* (OLS) Obstacle Limitation Surface
- (ICAO)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
- (OAS) Obstacle Assessment Surface
- (CRM) Collision Risk Model

- 국토교통부는 김해신공항 부울경TF와의 비공개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던 우려사항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충분히 설명하였고,
  - 향후, 3개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하면서,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는 등 지역과 소통하면서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.

<관련 보도내용 (노컷뉴스, 8.30)>

- ◆ 국토교통부가 김해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에 하자가 있었음을 시인
  - 파리공항공사(ADPi)가 소음피해 부분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지 않음
  - 김해공항이 군사공항임에도 군 당국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아 실정법 위반
  - 항공법 상 규정된 진입표면 장애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
  - 기본계획 수립 시에 소음피해, 안전성, 공항 확장성 등을 재검토 필요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신공항기획과 김진성사무관(☎ 044-201-414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